

# 넓은 열쇠·냄비가 비엔날레 주인공 된다

### 박찬경·권병준 작가 참여...전통 '걸림' 재해석한 작업 시청에 금속수집함 설치...23일 오후2시 작품설명회 개최

광주시는 오는 9월5일 막을 올리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시민들의 손길로 완성되는 특별한 예술프로젝트 '불림'을 선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직접 기부한 금속이 예술가의 손을 거쳐 '세상에 없던 악기'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담는다.

'불림'은 박찬경·권병준 작가가 참여하는 'GB 커미션'의 핵심 작품으로, 은 마을을 들며 물품과 염원을 모아 의례를 통해 공동체에 되돌려주는 한국 전통의례인 '걸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리·설치 작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광주·전남 시민이 기부한 금속으로 악기를 제작하고, 해당 악기로 만든 음악을 전시와 퍼포먼스로 선보

이는 방식이다. 시민의 일상 속 물건이 예술로 재탄생해 공동체로 환원되는 순환구조를 담았다.

광주시는 프로젝트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청 1층에 금속수집함을 비치, 다음달까지 운영한다.

수집 대상은 전선, 열쇠, 노트, 냄비, 캔 등 다양한 금속류다. 참여자에게는 비엔날레전시장 내 '불림' 작품 인공에 이름을 표기하고, 제작된 작품 음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프로젝트의 작품 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연다. 참여 작가가 직접 나서 프로젝트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광주시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시청 1층에 금속 수집함을 비치해 다음달까지 운영한다.

Life)'를 주제로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기존·신규 작품과 함께 광주의 역사와 시민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한 'GB 커미션' 작품들로 구성돼 세계적인 현대미술 축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재 시 문화체육실장은 "불림" 프로젝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완성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광주비엔날레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문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B 커미션'은 광주비엔날레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작가에게 제안하는 '광주 맞춤형 신작 제작 프로젝트'로 광주 역사와 장소성, 시민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한 작품이 특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지난 17일 광주 서구청 나눔홀에서 열린 '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주당 광주시당 광역의원 장애인 비례 후보 이순화 선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장애인 분야 경선에서 이순화 전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를 후보(사진)로 선출했다.

권리당원 투표 100%로 처리된 이번 경선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4인 경쟁으로 진행됐다. 경선에는 강경식·노동주·이순화·전지광 후보가 참여했고, 이순화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앞서 광주시당 선관위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적임자 선출에 초점을 맞춰 4명의 후보군을 확정했다. 이순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조기 정착' 지원 나선다

### 내달 8일 시청서 '유학생 교육'...비자정책 등 안내

광주시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조기 정착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다음달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대학에 입학한 신입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육은 2024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공연 △광주 생활 안내 △주요 관광지 소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 안내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광주 생활 안내'에서는 외국인주

민지원센터가 순차 통역을 통해 한국어 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무료 상담 서비스, 생활 가이드 등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관광공사는 지역 대표 맛집과 관광지, 5·18 사적지 등을 소개하며 광주의 문화와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르바이트, 구직, 취업과 관련된 비자 발급 절차와 법무부 유학생 정책을 안내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유학생은 다음달 7일까지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에 사전 신청하면 되며, 재학 중인 대학을 통해 접수하거나 교육 담당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광주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학업과 정주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에는 664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광주시는 서포터즈 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날' 개최, 유지 및 정주 지원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순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전남 취약계층 3만7000가구 겨울 지원 주거 개선·난방·안전교육 병행...민관 협력으로 대응

전남도가 겨울철 취약계층 3만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 지원, 화재 예방 교육 등을 집중 추진하며 생활 안정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을 통해 총 3만7000여 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가구가 2만 3861가구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으며, 장애인 가구 3192가구, 어르신 부부 가구 2744가구, 중·장년 1인 가구 1979가구, 한부모가정 131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원은 화재 예방과 난방,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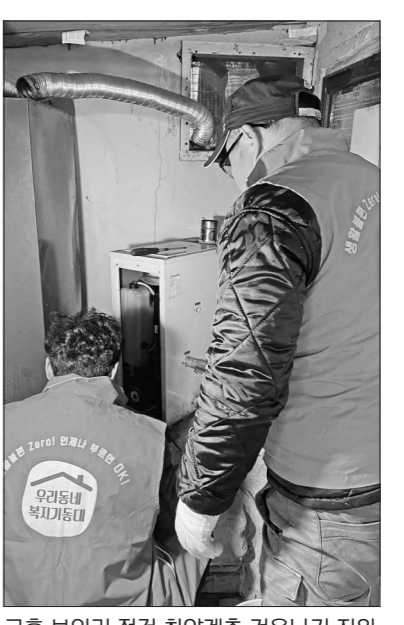
불안전과 가스레인지, 전기제품 점검·교체 등 화재 예방 점검이 7010가구에 이뤄졌고, 보일러와 난방유, 온수매트 등 난방물품은 2704가구에 지원됐다.

소규모 수리·수선 등 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도 1223가구에 제공됐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497가구는 생계·의료·주거비 등 생활안정 자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전남소방본부 '119생활안전 순찰대'와 연계한 현장 교육도 확대됐다. 온열기 사용 교육 4856가구, 주택 화재 예방 교육 5122가구, 일상 안전 교육 497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기감지기 4885개, 스프레이소화기 4732개, 산소발생마스크 6414개, 미끄럼방지매트 4895개 등 안전 물품도 함께 지원됐다.



고흥 보일러 점검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민간 자원 연계도 병행됐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유·생필품 지원 등이 이뤄지며 총 27억6000여만원 규모의 지원이 투입됐다.

현장 사례도 이어졌다.

해남의 한 장애인 가정은 자활센터 청소사업단과 함께 주거 정비와 보일러 교체를 지원받아 생활환경이 개선됐고, 구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1인 가구가 발굴돼 긴급 지원과 통합사례관리로 연계됐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의 협력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생활밀착형 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국 첫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 AI·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 예비 창업 최대 2400만원 지원

주항공·바이오·AI·에너지 등 지역특화 기술 100명 △농수산기술 30명 △문화·관광 20명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24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1대1 멘토링과 경영·회계·법률·투자유치 등 전문가 교정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육기관 창업·보육 공간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인증,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신청은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벤처창업 종합안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서순우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청년이 머무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창업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선발 규모는 총 150명(기업)으로 스무

전남도가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제2기 지원자(기업)를 오는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나 창업 5년 이내 기업인(2021년 1월 1일 이후 창업) 중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1981년부터 2008년 출생자)이다.

예비창업자는 전남지역 16개 대학·출연기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1년 이내 사업자(법인) 주소를 해당 시설에 등록해야 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